

고흥군,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140억 원 투입

대기자 없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해 140억 원을 투입해 3천67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2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민선8기 군민과의 약속인 '대기자 없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행하고자 올해 사업비로 28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해보다 734명이 늘어난 3천675명의 참여자를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경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서비스형' ▲창업지원을 통해 수익 창출을 하는 '시장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참여자의 욕구에 따라 사업을 세분화했고, 민간수행기관인 고흥시니어클럽에서 24개 사업단을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

들이 안전하고 활기차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2월 중 노인일자리 발대식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참여는 어르신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 지원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 참여자와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정근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해 140억 원을 투입해 3천67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2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로 28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해보다 734명이 늘어난 3천675명의 참여자를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고흥군 제공

보성군, 군민과의 대화 개최

보성군은 7일 보성읍을 시작으로 15일까지 1일 2개 읍면씩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군민들과 군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수렴해 군과 읍면민이 함께 군정을 이끌어가는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일상에서 느낀 점이나 군정발전 방안이 있는 주민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처음으로 군수가 직접 군정 현황과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등 정형화된 형식을 탈피한 공감을 더하는 대화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철우 군수는 "올해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군민들과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군민과의 대화는 ▲7일 보성읍, 웅치면 ▲8일 득량면, 화천면 ▲9일 미력면, 노동면 ▲10일 겸백면, 울어면 ▲14일 복내면, 문덕면 ▲15일 조성면, 벌교읍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윤성 기자

신우철 완도군수 산림청 방문해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요청

산림청이 전남 완도군에 '국립난대수목원'을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신우철 완도군수가 지난 30일 산림청을 방문해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신우철 군수는 남성현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 신우철 군수는 "어려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우리 군에 국립난대수목원이 조기 조성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면서 "국립난대수목원이 해양치유산업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원동력이 될 전망으로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에게 하루빨리 국립난대수목원 개원이라는 선물을 안겨 드리고 싶다"라고 조기 조성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러 "개원 시기에 맞춰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케이볼카 등 관광 자원 연계와 더불어 광주~완도 고속도로, 완도~고흥 해양관광도로 등 접근성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수목원 조성 과정에 수반되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립난대수목원이 대형 국제 사업인 만큼 국민이 하루 빨리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산림청도 서두르고 있다"면서 "지난 50년간 잘 가꾸어온 숲을 이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때이므로, 수목원이 갖춰야 할 수집, 전시, 교육, 보전, 연구 기능과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에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백나영 기자

해남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공모선정

해남군이 질병관리청 주관 2023년 지역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공모에 선정돼 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역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은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문제 원인을 분석, 그에 맞는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5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해남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1.1%로 초고령화가 심화된 계곡면 주민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은 지속증가하고 있어, 그에 맞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차년도는 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2차년도인 202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농어촌 지역의 건강격차 해소 문제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욱 기자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무료 치매진단검사

진도군이 치매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진단검사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최근 진도군은 치매상담, 예방, 조기진단 등 통합적인 치매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협력의사를 위촉, 정밀하게 치매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는 지난

2018년 해남우리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치매환자의 원활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위촉 후 활동하고 있다.

무료 치매진단검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중증화 방지를 위해 1차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또 치매 조기 검진자 중 인지저하 증상 대상자들에게 2차 치매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환자로 등록되면 ▲치료비·조호 물품 지원 ▲치매환자가족 자조모임 ▲치매 통합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한편 치매 상담문의는 진도군 치매안심센터(061-540-6967), 임회분소(061-540-6388) 등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이현일 기자

건강한 먹거리를 사랑하는 곽성 특산품

섬진강 맑은 물 골짜기의 산들바람 자연속 가족마을 곽성에서 생산된 딸기, 사과, 백세미, 토란 등 친환경 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곽성군 농정과 유통양정팀
061-360-7183

곽성 토란

곽성 딸기

곽성 멜론

누렁지향 가득한 백세미